

Morning Meeting Brief

Daishin's View

[Daishin's View] 2026년 8월 3주차

- 금리: 韓 최종 금리 컨센 정립까지 변동 위험. 美 플래트닝 주목. 환율: 양방향 수급 맞서며 소강, 연내 추가 급락 가능성 높지 않아
- 국내 증시: 반도체 주도력 회복 & 비반도체 순환매, 정상화 국면. 글로벌 증시: 8월, 매크로 및 통화정책 영향권, 증시 변동성 지속
- 원자재: 호르무즈 정상화라는 미 에너지부, 선거 전 실물지표 초점. 부동산: 주택은 초고가와 중저가 차별화, 상업용 기간 조정 장기화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Fixed Income

커브(curve) 안정 없이, 금리 안정도 없다

- 유가, 물가 안정에도 금리 불안은 지속, 특히 장기금리 부진이 이어짐
- 장단기 금리의 상대적인 흐름 반영하는 수익률곡선: 과격한 스티프닝
- '말로 만 매파' 위시 + 수급 부담, 당분간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국면 예상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Strategy

[Next Step] 반도체 주도력 회복, 단기 과열은 식히고, KOSPI 8,000 선을 향해!

- 반도체의 주도력 회복, 주요 업종들의 업황/실적 분위기 반전
- KOSPI 선행 PER 7배 회복으로 8,500선 돌파 시도, 선순환의 고리 형성 가능성 염두
- KOSPI 6,000선대 등락은 비중확대 기회, KOSPI의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퀀틴전시 플랜] 하나씩 맞춰지는 퍼즐, KOSPI 7,000 선 가시권

- PPI에서도 확인된 물가 둔화, 샌디스크발 메모리 훈풍까지
- KOSPI 7,000선에 근접, 달러-원 환율 안정과 외국인 순매수 지속
-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업종별 호재에 차별화 장세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2Q26 Review] 현대해상: 놀라운 변화! (목표주가 22.9% 상향)

- 보험손익 사상 최고 실적 기록하며 2분기 순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 질적 성장 강조 이후 모든 지표 개선, 상위권사에 버금가는 펀더멘탈 완성
- 도수치료 관리급여 영향 가장 높아 하반기 손해를 안정화, 목표주가 상향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com

[2Q26 Review] DB 손해보험: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손해율과 기대되는 새로운 밸류업

- 2분기 보험손익/ 투자손익 모두 개선되며 사상 최고 실적 달성
- 위험손해율 2.6%p 하락, 관리급여 시행으로 하반기도 안정화 예상
- 포르테그라 인수 완료, 연결 기준 새로운 배당정책 기대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Issue & News] GS 건설: 삼박자를 갖춘 건설주

- 투자익건 매수 유지, 목표주가 44,000원으로 +22.2% 상향. 건설업종 내 차선후주 제시
- 주택 수익성, 데이터센터, 원전 등 업종 내 핵심 투자포인트를 모두 보유
- 동해 AIDC 기반 대규모 잠재 수주 확보, 착공 가시화 시 리레이팅 기대

이혜진, Hyejin1.lee@daishin.com

[2Q26 Review] CJ: 성장의 청구서

- 핵심 자회사 성장 투자에 따른 비용 확대 구간, 목표주가 하향(-19.2%)
- 2Q26 연결 매출액 11조 5,281억원, 영업이익 5,318억원(-14.1% YoY)
- 올리브영 미국 진출과 올리브베러 신사업 확장에 재원을 투입하는 시기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2Q26 Review] SK: 할인을 좁혀질 이유가 늘었다

- 2Q26 매출액 42조 1,247억원, 영업이익 4조 8,412억원(+2,212.5% YoY)
-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마친 자회사 이익 체력 확인
- SK에코플랜트 분기 최대 매출 달성하며 AI DC 관련 실적 반영 본격화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2Q26 Review] 인터플렉스: 2Q 부진, 새로운 변화 필요!

- 2Q26 영업이익(-52억원 적전 yoy/qoq)은 추정을 하회 및 부진
- 삼성전자향 디지털디저(양면PCB) 매출 감소 및 고정비 부담 가중
- 신성장 관점에서 매출 다각화 및 거래선 다변화가 필요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2Q26 Review] 코리아씨키트: 긴 호흡의 접근, 반도체 패키지 업체로 성장

- 2Q26 영업이익(193억원 213% yoy/-27% qoq)은 컨센서스 하회
- 2026년 영업이익(996억원)은 5.2%(yoy) 추정, 개선 전망은 유지
- 2026년 브로드컴, 엔비디아(소캠)향 매출 증가로 성장 토대 구축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2Q26 Review] KH 바텍: 2Q 부진하나 로봇 및 전장은 확대 추진

- 2Q26 영업이익(50억원)은 컨센서스 하회, 스마트폰 판매 부진
-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판매 둔화, 원가부담 가중 예상
- 2027년 전장향 및 로봇 사업의 확대, 신성장 확보 추진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2Q26 Review] 자화전자: 2Q 실적도 깜짝!

- 2Q26 매출(2,352억원)과 영업이익(225억원)은 호조, 추정을 상회
- 북미향 액츄에이터(OIS) 매출 증가 및 점유율 확대
- 2026년 1조원 매출을 예상, 영업이익(921억원)도 최고 추정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2Q26 Review] 영원무역: 하반기 호실적, 매력적인 valuation, 높은 배당수익률 3 박자

- 2분기 OEM 달러 기준 14%, 원화 기준 23% 고성장(yoy)
- Scott 적자 확대됐으나 재고 30% 감소(현지화 기준)하며 실질 내용 개선
- 배당성향 30%로 상향 공시. 주가 하방 경직성 확보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2Q26 Review] 한세실업: 2분기 예상 밖 서프라이즈

- 2분기 OEM 영업이익률 크게 개선되며 서프라이즈
- 3분기 달러 기준 매출액은 전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주가 하락으로 배당 수익률 6% 상회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2Q26 Review] LS: 내러티브가 실적으로 증명되기 시작!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630,000원 유지
- 2Q26 영업이익 5,956억원(+153% YoY)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 2H26 영업이익 1,06조원(+106% YoY) 전망, 26년 영업이익 26% 상향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2026년 8월 3주차

Daishin Research Center

[금리] 국고 3년 3.60~4.05%

韓 최종 금리에 대한 컨센서스 정립까지 변동성 위험. 美 커브 플래트닝 전환 주목
한국은 인상 사이클 개시 이후에도 백투백 인상 여부,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컨센서스 미형성 등으로 시장금리 변동성 위험. 다만 점진적 인상 경로 확인 시 제한적 금리 하향 안정화 가능.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의 전환이 확인된 반면 실제 인상 시기 혼선 우려로 장기금리 변동성 위험 상존. 수익률곡선 플래트닝 전환 여부 주목

[환율] 달러-원 환율 1,390~1,500원

급강하 후 양방향 수급 맞서며 소강 상태, 연내 추가 급락 가능성은 높지 않아
환율 급락에도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 꾸준히 출회 중. 하지만 중동 리스크와 연준 금리 인상 기대가 잔존하는 가운데 저가 매수도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상하방 모두 무거운 흐름. 매크로 펀더멘털과의 괴리는 상당 부분 해소. 중동 분쟁 해결 또는 연준 금리 인상 우려가 완전히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면 1,300원대 안착 보다는 수급 이슈 소멸 후 1,400원대 박스권

[국내 증시] KOSPI 5,000~9,300p

반도체 주도력 회복 & 비반도체 순환매. KOSPI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 전개
반도체 수출 모멘텀 및 가격 상승 확인, 밸류에이션/가격 매력을 바탕으로 KOSPI 시장 주도력 회복. 비반도체 또한 수출, 실적 모멘텀과 수급 개선, 채권금리 안정에 힘입어 순환매 전개. KOSPI 12개월 선행 PER 5배 초반에서 회복, KOSPI 6,800 ~ 7,000선 안착시 1차 반등 목표 선행 PER 7배(8,500선)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

[글로벌 증시] S&P500 7,000~8,400

8월 글로벌 증시, 매크로 및 통화정책 영향권(물가, 금리, 긴축). 증시 변동성 지속
6월 BOJ, ECB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통화 긴축 부상, 7월 이란 전쟁 확전에 이어 7.23일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로 위험선호심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매크로 환경 지속. 2/4분기 어닝 시즌 기대감 불구, 미국 펀더멘털은 증시 방향성 결정 요인이 아닌 변동성 축소 요인으로 역할 지속. 한번은 겪어야 할 물가, 금리, 긴축이라는 파고, 실적, 진폭을 줄여줄 것

[원자재] WTI 70~95\$/bbl.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됐다는 미 에너지부. 중간 선거 앞두고 경계, 실물 지표 초점
미 에너지부 장관, 미군+걸프 동맹 간의 조율로 호르무즈 해협 통한 원유 수출량이 900만b/d 회복, 우회 시설 포함 시 1,500만b/d까지 도달 주장. 트럼프 대통령도 해협 장악했다 강조.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통한 선박 통행량은 일간 10척 미만, IEA 회원국들의 SPR 방출 효과가 종료된 상황에서 숏티지 우려 심화. EIA 초차 내년 말까지 호르무즈 해협발 숏티지 경고

[부동산] 주택: 강보합, 상업: 약보합

주택 세제개편으로 초고가와 중저가 시장 차별화, 상업용 기간 조정 장기화 전망
주택 : 세제개편 영향으로 초고가 시장 조정, 전세가울 높은 중저가 지역 및 구매력 급증한 수도권 동남권 지역 가격 상승 지속 예상. 임대 시장은 전반적 강세 전망
상업 : 지속적인 시장 금리 상승과 오피스 임대 시장 둔화로 보수적인 관점 필요, 물류 섹터는 우량 자산 중심으로 임대 시장 회복 나타나 조정 시 선별/분산 투자 의견 유지

Fixed Income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rak
dongrak.kong@daishin.com

커브(curve) 안정 없이, 금리 안정도 없다

- 유가, 물가 안정에도 금리 불안은 지속. 특히 장기금리 부진이 이어짐
- 장단기 금리의 상대적인 흐름 반영하는 수익률곡선: 과격한 스티프닝
- ‘말로 만 매파’ 워시 + 수급 부담. 당분간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국면 예상

물가 안정에도 시장금리 및 수익률곡선의 불안한 동향 지속

CPI, PPI 등 물가 안정을 시사하는 지표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기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준의 정책 행보에 대한 불신과 하반기 고질적인 국채 수급 부담이 장기 영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수익률곡선 역시 과격한 스티프닝을 나타내고 있다.

금리 등락 만큼이나 특히 더 주목할 것은 수익률곡선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나 국제 유가는 꾸준히 안정세는 나타나며 전쟁 직후와 비교할 때 (평균 수준이) 확연히 낮아졌다. 당연히 유가 급등으로 높아졌던 기대 인플레이션(BEI) 등의 관련 지표들 역시도 안도감을 찾고 있다.

이쯤 되면 시장금리도 충분히 동반해서 하락 또는 안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시장금리 특히, 장기금리는 불안한 동향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임계치를 상회한 이후 좀처럼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동시에 장단기 금리의 상대적인 동향이나 움직임을 반영하는 대표 지표인 수익률곡선이 과격하게 스티프닝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미 7월 FOMC에서 워시 발(發) 커브 스티프닝 압력 크게 부각

사실 이 같은 장기 국채의 상대적인 부진은 지난 7월 FOMC(공개시장위원회)를 기점으로 조짐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워시 연준 의장은 헤드라인 상으로는 ‘물가 목표 2% 달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매파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이미 시장금리가 인상을 먼저 반영해 큰 폭으로 높아졌다면 금융 환경이 긴축적으로 변한 것”이란 취지의 애매한 본심을 드러내며 실제 기준금리 인상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시장도 빠르게 반응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금리는 하락한 반면 장기금리는 반대로 상승했다. 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만기별로 금리의 변화 정도가 다른 움직임이 아닌 어느 한쪽은 하락, 다른 쪽은 상승하는 ‘과격’ 수익률곡선의 스티프닝이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수익률곡선의 동향은 현재 워시가 겉으로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견제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미흡한 이른바 ‘말로 만 매파’일 가능성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워시는 의장 지명 당시부터 친(親) 트럼프 인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의장직이 취임했다. 이에 대해 본인이 직접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미 지 세탁에 나섰으나 의심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반도체 주도력 회복. 단기 과열은 식히고, KOSPI 8,000선을 향해!

- 반도체의 주도력 회복, 주요 업종들의 업황/실적 분위기 반전
- KOSPI 선행 PER 7배 회복으로 8,500선 돌파 시도, 선순환의 고리 형성 가능성 염두
- KOSPI 6,000선대 등락은 비중확대 기회, KOSPI의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

반도체의 주도력 회복, 주요 업종들의 업황/실적 분위기 반전

8월 둘째주 반도체가 주도력을 회복하면서 KOSPI 밸류에이션 정상화, 7,000선 회복시도 전개. CoreWeave, 슈퍼마이크로의 실적, 신규수주, 다음 분기 가이던스 서프라이즈를 통해 AI Capex 둔화 공포에 실증적 반박이 이루어졌고, SanDisk 인베스터데이를 통해 메모리 사업모델의 구조 전환 기대 확대. **AI, 반도체 기업 멀티플 정상화, 상향 동력**. 여기에 외국인 수급의 드라마틱한 반전 전개. 디레버리징이 상당부분 진행된 수급 공백 상황에서 외국인은 반도체 중심의 대규모 순매수 기록(8/11~14 누적 약 8조원, 그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 약 77%). 향후 8월 26일 엔비디아 실적(Q2 FY27), 3분기 가이던스(컨센서스 약 \$1,031억)는 물론, 반도체 업황/주가를 결정짓는 변수(수출, 반도체 가격, 정책 리스크, 수급 변화 등)들을 꾸준히 확인해 가야겠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업종들의 업황/실적 분위기 반전을 통한 밸류에이션 정상화는 시작되었다고 판단**

KOSPI 선행 PER 7배 회복으로 8,500선 돌파 시도, 선순환의 고리 형성 가능성 염두

KOSPI 7,000선 회복 시도에도 불구하고 **KOSPI 선행 PER은 5.74배에 불과**. 여전히 PER 6배 이하에 머물러 역사적 저점권에서 등락 중. 120일 이격도 또한 2000년 이후 평균의 -2표준편차 수준까지 도달한 이후 회복 국면 진입. **편더멘탈과 주가가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온 만큼 편더멘탈 악화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지수 반등, 빠른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 전개 예상**.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하더라도 불확실성 완화, 불안심리 진정에 근거한 수급 개선만으로도 과도한 하락만큼 강한 반등 탄력을 기대할 수 있음. **선행 PER 7배 회복 만으로도 KOSPI 8,500선 돌파/안착 시도 가능할 것**

물론, 단기 과열 국면 진입, Risk On 시그널 점점 진입, VIX 박스권 하단 이탈 등으로 **단기 과열 해소, 매물소화 국면 전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이번주 FOMC 의사록 내용에 따라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 그러나 최근 7월 고용 부진, 물가 둔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 무엇보다도 KOSPI 선행 PER 6배 이하라는 점에 주목. **현 밸류에이션 수준은 Upside Potential이 크다고 판단. 매도보다는 홀딩 또는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확대 전략 유효**. 여기에 미국과 이란 간 평화무드가 가세할 경우 유가 하락에 근거한 물가 안정 기대가 채권금리, 달러화 하향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즉, 극단적인 저평가 수준의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디레버리징 완료, 업황/실적 개선 재확인, 금리, 달러 안정 등의 동력 대기 중. **7월 급락과는 반대로 심리 - 수급 - 이슈/이벤트 - 편더멘탈 환경 간의 선순환 고리 형성, 자기강화현상 전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KOSPI 6,000선 등락은 비중확대 기회, 핵심은 견고한 경기/실적 상승 사이클 눌릴대로 눌러있는 KOSPI라는 스프링의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

향후 KOSPI는 반도체가 다시금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실적대비 저평가, 소외주들의 동반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1) 올해 월간 수익률 순위를 보면 반도체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시기별로 다양한 업종이 동반 강세를 기록. 실제로 지난주 반도체 급반등에도 불구하고 8월 2주 연속 상승 업종은 IT하드웨어, IT가전, 에너지, 자동차, 통신, 디스플레이 등 17개 업종에 달하는 상황. 2) 쏠림현상을 야기했던 금융투자의 매매 패턴, 확산으로 전환. 7월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24개 업종 순매수, 8월에도 8개 업종 순매수 중. 3) 비반도체 업종의 수출 호조, 실적 개선 가시화. **낙폭과대이면서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에 위치한 반도체, IT하드웨어, 소매(유통), 보험, 자동차, 상사/자본재, 조선, 2차전지 등 주목**

하나씩 맞춰지는 퍼즐, KOSPI 7,000선 가시권

- PPI에서도 확인된 물가 둔화, 샌디스크발 메모리 훈풍까지
- KOSPI 7,000선에 근접, 달러-원 환율 안정과 외국인 순매수 지속
-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업종별 호재에 차별화 장세

PPI에서도 확인된 물가 둔화, 샌디스크발 메모리 훈풍까지

미국 7월 CPI에서 물가 둔화 흐름이 확인된 데 이어 PPI에서도 둔화세를 확인. 7월 PPI는 전년 대비 +4.7% 상승하며 예상치 +4.9%를 하회했고, Core PPI는 +4.2% 상승하며 예상치에 부합. 이번 PPI 둔화에는 휘발유 가격 하락이 크게 기여. 다만 미국-이란 갈등 재부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반등으로 향후 물가 압력이 다시 확대 될 가능성은 상존. 그럼에도 PPI 둔화는 9월 금리 인상 명분을 약화했고, CME 기준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65.6%로 확대

한편 샌디스크는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2028~2030년 매출의 10%대 중후반 성장과 매출총이익률 약 80%, 영업이익률 약 75% 유지 목표를 제시. 여기에 FCF의 100%를 주주환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주가는 +13.7% 급등

샌디스크가 제시한 장기 성장성과 높은 수익성은 메모리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를 강화. 마이크론(+4.2%), 웨스턴디지털(+7.3%), 시게이트(+4.9%) 등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 이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주의 주가 상방 압력으로도 작용

반도체: 삼성전자(+2.4%), SK하이닉스(+3.3%), SK스퀘어(+3.3%)

KOSPI 7,000선에 근접, 달러-원 환율 안정과 외국인 순매수 지속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며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고, 7,000선에 근접.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 속 6,800~7,000선에 안착 시 선행 PER 7배 수준인 8,500선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

달러-원 환율 안정과 외국인 순매수 지속도 긍정적. 달러-원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일 대비 -1.1원 하락한 1,418.3원에 마감. SK하이닉스 ADR을 비롯한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가 이어지며 달러-원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는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지속했고, 4거래일 동안 8조 1천억원을 순매수. 환율 안정과 함께 외국인 수급 여건 개선되며 증시 상방 압력으로 작용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업종별 호재에 차별화 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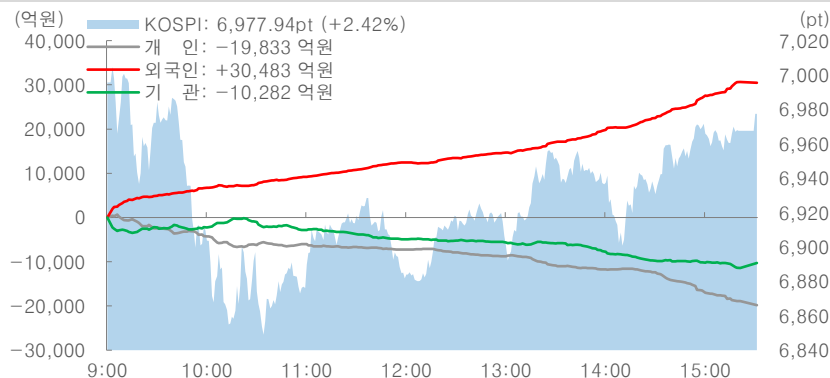
외국인 순매수 4거래일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업종별 호재에 따른 차별화 장세

자동차: 현대차(+8.2%), 현대모비스(+7.1%), DN오tomotiv(+19.1%)

조선: 한화오션(+5.6%), HD현대중공업(+2.8%), HD한국조선해양(+3.9%)

정유: S-Oil(+4.8%), GS(+8.9%), SK이노베이션(+5.8%)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현대해상 (001450)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권용수RA

yongsukwo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9,000

상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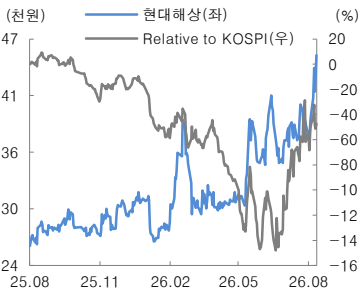
(26.08.14)

45,350

보험업종

KOSPI	6,977.94
시가총액	3,86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6%
자본금(보통주)	3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5,350원 / 26,4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24억원
외국인자본율	38.66%
주요주주	정몽윤 외 6 인 23.97% 국민연금공단 10.1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1.9	38.5	27.9	63.1
상대수익률	19.8	58.4	1.0	-24.6



놀라운 변화!

- 보험손익 사상 최고 실적 기록하며 2분기 순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 실적 성장 강조 이후 모든 지표 개선, 상위권사에 버금가는 펀더멘탈 완성
- 도수치료 관리급여 영향 가장 높아 하반기 손해를 안정화, 목표주가 상향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59,000원으로 상향

배당 지급이 제한되어 실적 성장을 강조한 이후 동사의 핵심지표들이 눈부시게 개선. CSM배수, K-ICS비율, ALM 매칭 등 모든 지표들이 상위권사에 버금갈 정도로 약진. 금번 실적발표에서 가장 중점이 되었던 부문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에 따른 손익 영향이었는데, 월평균 130억원 청구되었던 보험금이 7월 80억원까지 감소. 그러나 이 숫자 마저도 6월 막바지 청구건수가 증가한 수치라 8월 이후부터는 절감 효과가 더욱 드러날 것으로 전망. 또한 배당가능재원 마이너스폭이 가파르게 축소되는 점도 긍정적. 따라서 우리는 동사의 목표주가를 기존 48,000원에서 59,000원으로 22.9% 상향하고 투자의견 Buy를 유지함

2Q26 별도기준 순이익 3,918억원(QoQ +75.5%, YoY +85.2%) 기록

2분기 순이익은 당사 추정 및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서프라이즈 달성. 실적호조는 보험손익 개선에 기인. 계리적가정 선진화 방안 적용으로 동사는 오히려 CSM조정이 +4,400억원 반영되어 전체 CSM이 크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상각익이 증가하였고, 무엇보다 예실차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며, 동 가정 변경 영향으로 손실계약비용이 900억원 환입되어 전체 장기 보험손익이 3,480억원(QoQ +30.9%, YoY +89%)로 크게 개선되었음. 계리적 가정 변경 관련 동사는 비실손 갭신에 대해 100% 손해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 분기 조정액을 비롯한 환입금액이 크게 발생. 자동차보험손익 역시 흑자 전환하였고, 일반보험손익도 증가하여 전체 보험손익이 4,037억원(QoQ +33.7%, YoY +89%)으로 제도 도입 이후 4,000억원을 처음으로 상회

배당 지급이 제한되어 실적 성장을 강조한 이후 CSM배수도 18배를 재차 회복 하였으며 무엇보다 자본관리가 상당히 돋보였음. K-ICS비율 209%, 기본자본비율 83.8% 기록하였으며 듀레이션갭은 +0.7년으로 오버매칭되었고, 금리 관련 K-ICS비율 민감도가 크게 감소하였음. 해약환급금 100% 적용되면 기본자본비율은 95%까지 상승할 것으로 사측은 전망. 뿐만 아니라 1분기 -1.4조원을 상회하던 배당가능이익이 금리 상승으로 당 분기 -6,600억원까지 축소. 여전히 결손상태이기 때문에 '27년 배당재개를 판단하기에는 선부르나 그 시기가 단축되고 있음은 자명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보험손익	1,043	396	1,406	1,615	1,741
투자손익	352	330	199	201	203
순이익	1,031	561	1,175	1,287	1,379
YoY	27.9%	-45.6%	109.4%	9.5%	7.2%
기말 CSM	8,305	8,978	10,093	11,279	12,461
ROE	20.92	11.49	17.76	17.36	16.74
PBR	0.43	0.43	0.54	0.48	0.43
PER	2.07	3.77	3.03	2.76	2.58
DPS	0	0	0	2,063	2,269

자료:현대해상,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DB손해보험 (005830)

박혜진

권용수RA

hyejin.park@daishin.com

yongsu.kwo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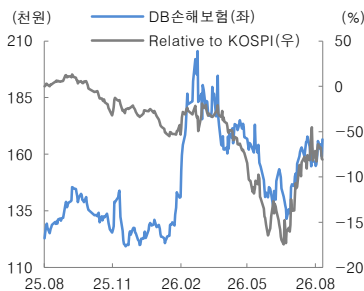
6개월
목표주가200,000
유지현재주가
(26.08.13)

166,600

보험업종

KOSPI	6,813.34
시가총액	10,91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6%
자본금(보통주)	3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05,500원 / 119,3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28억원
외국인자본율	44.54%
주요주주	김남호 외 14 인 27.57% 국민연금공단 8.3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7	3.6	-8.5	30.3
상대수익률	4.6	19.3	-26.1	-38.4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손해율과 기대되는 새로운 밸류업

- 2분기 보험손익/ 투자손익 모두 개선되며 사상 최고 실적 달성
- 위험손해율 2.6%p 하락, 관리급여 시행으로 하반기도 안정화 예상
- 포르테그라 인수 완료, 연결 기준 새로운 배당정책 기대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00,000원 유지

포르테그라 인수 완료되어 연결기준 배당정책 발표할 전망. 시기는 3분기로 사측은 계획하고 있으며, 빠르면 9월초 발표 가능할 것으로 우리는 추정. 포르테그라의 연간 순이익이 2,000억원 내외이기 때문에 연결 영향으로 추가 DPS 500원 증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우리는 당초 동사의 '26년 DPS 8,000원 전망' 하였는데, 2분기 순이익이 우리의 추정을 30% 이상 상회함에 따라 10,000원으로 상향. 연결기준으로는 10,500원 이상 가능할 전망

2Q26 순이익 7,111억원(QoQ +165%, YoY +54.6%) 기록

2분기 순이익은 당사추정 및 컨센서스를 30% 이상 상회하는 어닝서프라이즈 달성. IFRS17 도입 이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 실적호조는 보험이익과 투자이익 모두 약진한 데 기인

장기보험손익 5,100억원(QoQ +92.5%, YoY +98.6%) 기록. 계리적가정 선진화 방안 적용에 따라 CSM조정 -4,042억원 발생하여 기말 잔액 자체가 감소하여 상각익도 감소하였으나 위험손해율 하락으로 보험금예실차 적자폭이 축소되었고, 전술한 가정 변경에 따라 손실부담계약 환입 2,700억원 발생한 영향. 일반 보험도 간만에 대사고 영향 없어 흑자전환하여 전체 보험 손익 5,620억원(QoQ +148%, YoY +110%) 달성. 투자손익 4,020억원(QoQ +70.3%, YoY +16.7%)으로 주식자산 평가익 크게 발생하여 증가

6월말 K-CS비율이 204.3%(잠정)으로 1분기 대비 27.8%p 하락하였는데, 포르테그라 인수 영향 8,000억원, 계리가정 변경 영향 3,000억원 등 요구자본 총 1.6조원 증가한 영향. 이익잉여 증가와 더불어 12월말 간편보험 계리가정 변경이 진행될 예정이라 12월말에도 동 수준이 유지,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전술한 영향을 제외한 해지율 반영에 따른 경상적 CSM조정액은 -1,000억원 수준으로 사측은 설명. 손해율을 비롯해 해지율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어 CSM 순증기조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13회차 유지율은 89.6%까지 상승

6월말 위험손해율 99.1%로 1분기 대비 2.6%p 하락하였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 이긴 하나 도수치로 일평균 청구액이 2억원으로 제도 시행 전 대비 1.3억원 개선되어 분기 78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 다만 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근 골격계 질환 청구 영향 존재하긴 하나 절대금액 자체가 감소하였고, 지난해부터 3차례 인상한 요율 영향이 하반기 가시화 될 것이기 때문에 추세적 안정화 지속될 것으로 전망

GS건설 (006360)

이혜진

hyejin1.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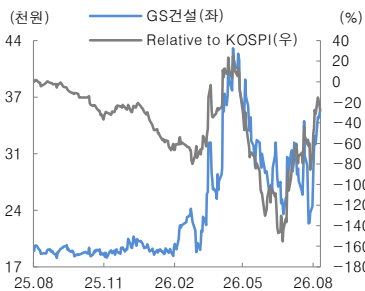
6개월
목표주가44,000
상향현재주가
(26.08.14)

35,350

건설업종

KOSPI	6,977.94
시가총액	3,02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5%
자본금(보통주)	42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3,100원 / 18,07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854억원
외국인지분율	18.64%
주요주주	허창수 외 14 인 23.02% 국민연금공단 10.0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1.2	7.5	62.6	92.6
상대수익률	21.1	23.8	31.5	-8.9



삼박자를 갖춘 건설주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4,000원으로 상향. 건설업종 내 차선호주 제시
- 주택·데이터센터·원전 등 업종 내 핵심 투자포인트를 모두 보유
- 동해 AIDC 기반 대규모 잠재 수주 확보, 착공 가시화 시 리레이팅 기대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44,000원으로 상향. 차선호주로 제시

GS건설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44,000원으로 상향(+22.2%). 목표주는 12개월 선행 BPS 60,026원에 Target PBR 0.73배를 적용. 현재 추정치는 동해 AIDC 관련 수주 및 실적 미반영 상태로, 향후 사업 구체화 및 초기 계약 가시화 시 이익 추정치 상향과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 존재. 건설업종 내 차선호주로 제시

주택 수익성·데이터센터·원전 등 업종 내 핵심 투자포인트를 모두 보유

① 주택, 원가 부담 해소와 매출 회복 기대

주택 부문은 고원이 현장 소진과 고수익 현장의 매출 인식 본격화에 따라 수익성 개선 지속. 원가율 정상화에 따라 하반기 주택 GPM은 12~15% 수준 전망. 상반기 누적 분양은 10,950세대로 연간 목표인 14,320세대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며, 분양 물량 증가에 따라 주택 매출은 2026년 저점 통과 후 2027년부터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② 데이터센터, 신규 성장동력으로 부상

GS건설은 자이C&A 포함 총 20건, 70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레퍼런스 보유. 국내 최대 수준. 현재 GS그룹의 동해 AIDC를 포함해 4건, 2,530MW 규모의 파이프라인 확보. 데이터센터는 공사기간이 2~3년으로 짧아 수주 이후 매출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특징. GS건설 및 자이C&A의 축적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대형 AI 데이터센터 수행 역량 확보

핵심은 GS그룹이 추진중인 동해 AI 데이터센터. 총 사업 규모는 2.4GW로, 1.2GW는 2028년 준공 목표, 추가 1.2GW는 2029년까지 준공 검토 중. 현재 주요 인허가 절차 진행 중이며 연내 착공 목표. 아직 사이트 구성, 착공 규모 및 시점, 계약 구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아 전체 도급액 선반영은 이르나, 경험적으로 MW당 약 100억 원 수준의 도급액 적용 시 1GW 기준 약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잠재 수주 확보 기대. 연내 착공 및 초기 계약 가시화 시 이익 추정치 상향 및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③ 원전, 열려 있는 추가 성장 옵션

신한울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에 비주간사로 참여한 경험 보유. 현재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 차세대 대형 원전 관련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원전 레퍼런스 확대 중. 베트남 닌투안 원전 등 해외 신규 원전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중장기 해외 원전 시장 확대에 따른 추가 수주 모멘텀 기대

CJ
(001040)

이경연

이채리 RA

kyungyeon.lee@daishin.com

cherry.lee@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10,000

하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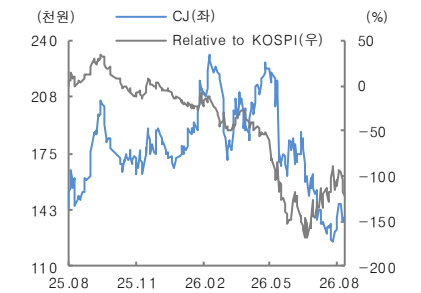
138,100

(26.08.14)

지주업종

KOSPI	6977.94
시가총액	4,74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7%
자본금(보통주)	14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32,000원 / 124,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63억원
외국인지분율	17.53%
주요주주	이재현 외 7 인 47.59% 국민연금공단 13.0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7	-35.2	-39.4	-4.4
상대수익률	0.9	-25.8	-52.2	-55.8



성장의 청구서 - 비용은 '26년, 수확은 '27년

- 핵심 자회사 성장 투자에 따른 비용 확대 구간, 목표주가 하향
- 2Q26 연결 매출액 11조 5,281억원, 영업이익 5,318억원(-14.1% YoY)
- 올리브영 미국 진출과 올리브베러 신사업 확장에 재원을 투입하는 시기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210,000원으로 하향(-19.2%)

목표주가는 SOTP 방식으로 산출. 로열티 수익가치(2.0조원), 상장(2.1조원)·비상장(5.6조원) 자회사 지분가치(7.8조원)를 더하고 별도 순차입금(2,896억원)을 차감한 NAV 9.5조원에 Target 할인율 55%를 적용한 후, CJ올리브영 지분가치(5.5조원)의 25%를 가산한 Target NAV 5.6조원을 보통주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출.

2분기 연결 매출액 11조 5,281억원(+3.7% YoY), 영업이익 5,318억원(-14.1% YoY)

2Q26 실적은 당사 추정 및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 매출총이익률은 29.9%로 0.9%p 개선되었으나, 신사업 가속화를 위한 판관비 집행으로 판관비율이 1.9%p 상승하며 영업이익률 4.6%(-1.0%p) 기록. 순이익은 1,556억원(-57.2% YoY)으로 감소 폭 확대되었는데, 영업이익 감소(-870억원)보다 영업외수지 악화(-2,026억원)의 영향이 컸음.

[별도] 영업수익 671억원(-39.9% YoY), 영업이익 191억원(-69.4% YoY, 영업이익률 28.5%). 주요 연결 자회사 실적은 [CJ제일제당] 매출액 7조 3,621억원(-4.9% YoY), 영업이익 2,576억원(-34.7% YoY, OPM 3.5%), [CJ ENM] 매출액 1조 2,033억원(-8.3% YoY), 영업이익 334억원(+16.8% YoY, OPM 2.8%), [CJ올리브영] 매출액 1조 7,977억원(+23.0% YoY), 순이익 1,352억원(-6.1% YoY). 전년 일회성 부가세 환급에 따른 기저효과와 법인세 증가로 순이익률 하락.

올리브영 미국 진출과 올리브베러 신사업 확장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구간

지난 5월, 일본에서 첫 '올영 페스타 JAPAN 2026'을 개최했고, 웰니스 신사업 초기 인지도 확보를 위해 올리브베러 TV광고 집행. 일본에 이어 8월에는 'KCON LA 2026' 메인 스폰서 참여와 연계해 미국 첫 대규모 '올영 페스타 LA 2026' 개최 예정이며, 종료 직후인 8월 20일부터 세포라 샵인샵을 개시할 계획. 국내 인바운드 매출 급증에도 영업 레버리지가 제한된 이유는 이러한 해외 대형 이벤트 비용 때문. 외형 성장세가 유지되는 만큼 내년 성과를 위한 올해의 비용 집행 구간으로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1Q26	직전추정	잠정치	2Q26			3Q26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1,119	11,451	11,261	11,528	3.7	0.7	11,503	11,636	1.8	0.9
영업이익	615	461	742	532	-14.1	15.4	667	655	-1.7	23.1
순이익	164	76	47	61	-62.9	-18.8	113	30	79.2	51.2

자료: CJ,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SK
(034730)

이경연

이채리 RA

kyungyeon.lee@daishin.com cherry.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88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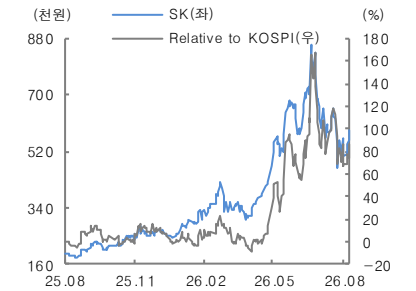
585,000

(26.08.14)

지주업종

KOSPI	6977.94
시가총액	42,62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64%
자본금(보통주)	1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858,000원 / 178,9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425억원
외국인지분율	29.93%
주요주주	최태원 외 33 인 25.40% 국민연금공단 7.7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1	8.1	67.4	214.0
상대수익률	2.3	23.7	32.1	45.2



할인을 좁혀질 이유가 늘었다

- 2Q26 매출액 42조 1,247억원, 영업이익 4조 8,412억원(+2,212.5% YoY)
-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마친 자회사 이익 체력 확인
- SK에코플랜트 분기 최대 매출 달성하며 AI DC 관련 실적 반영 본격화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80,000원 유지

목표주가는 SOTP 방식으로 산출. 자체사업 및 로열티 영업가치 13.0조원, 상장 자회사 지분가치 73.4조원, 비상장 자회사 지분가치 3.8조원을 합산한 뒤 별도 순차입금 8.5조원을 차감한 NAV 81.7조원에 Target 할인율 41%를 적용.

연결 매출액 42조 1,247억원(+39.9% YoY), 영업이익 4조 8,412억원(+2,212.5% YoY)

2Q26 실적은 당사 추정 및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 석유·유탄기유 마진 회복에 따른 SK이노베이션의 대규모 흑자전환과 반도체·AI 인프라 밸류체인 수요를 흡수한 SK에코플랜트의 분기 최대 매출이 동시에 반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마친 자회사 이익 체력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된 분기로 판단.

[별도] 매출액 1조 2,745억원(+27.0% YoY), 영업이익 5,379억원(+62.6% YoY, OPM 42.2%). 별도 영업수익은 IT서비스 7,434억원, 배당수익 4,094억원, 상표권 사용수익 1,208억원으로 구성. 2분기에 집중된 자회사 배당 유입(전년 동기 2,490억원)이 이익 개선을 견인. 주요 연결회사별 실적은 [SK이노베이션] 매출액 29조 1,572억원(+50.1% YoY), 영업이익 3조 4,873억원(흑자전환, OPM 12.0%). [SK스퀘어] 매출액 3,285억원(-7.6% YoY), 영업이익 19조 2,354억원(+1,273.8% YoY). [SK텔레콤] 매출액 4조 3,591억원(+0.5% YoY), 영업이익 5,660억원(+67.3% YoY, OPM 13.0%).

SK에코플랜트, 비상장 자회사 가치 재평가의 핵심 변수로 부상

SK에코플랜트 2Q26 매출액은 5조 1,510억원(+68.4% YoY, +5.1% QoQ)으로 분기 최대치 경신. 영업이익은 5,340억원(+265.7% YoY, -42.7% QoQ), EBITDA 마진은 11.8%(+5.1%p YoY) 기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청주 M15X 등 대형 EPC 프로젝트와 울산 AI DC 공정이 본격화되었고, DRAM·NAND 판가 상승이 반도체 모듈 유통(Essencore) 매출로 직결되며 Asset Lifecycle이 급증.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은 Asset Lifecycle 45%, Hi-Tech 33%, 솔루션 18%, Gas & Material 4%로, 이미 반도체 연동 매출이 전체의 80% 내외. 2Q 수주금액은 7.8조원(QoQ +7.2조원), 수주잔고는 26.8조원으로 Hi-Tech 대형 프로젝트 확보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매출 가시성 높다고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1Q26	직전추정	잠정치	2Q26			3Q26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0,142	36,751	39,259	42,125	39.8	14.6	36,902	38,150	22.9	-9.4
영업이익	200	3,852	3,988	5,021	2,416.1	30.3	2,735	4,033	387.4	19.7
순이익	548	1,458	1,984	1,692	208.9	16.0	1,414	1,454	52.9	14.0

자료: SK, Fr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터플렉스 (05137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하향

6개월 목표주가

8,500

하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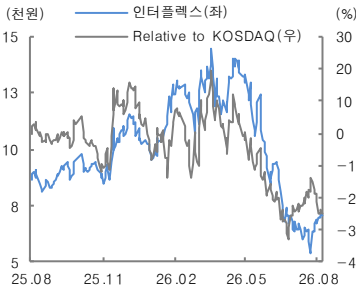
(26.08.14)

7,32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DAQ	864.65
시가총액	17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3%
자본금(보통주)	1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4,480원 / 5,69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2억원
외국인지분율	8.02%
주요주주	코리아씨키트 외 4인 47.7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7	-43.6	-42.7	-19.6
상대수익률	-0.5	-22.4	-26.7	-24.2



2Q 부진, 새로운 변화 필요!

- 2Q26 영업이익(-52억원 적전 yoy/qoq)은 추정을 하회 및 부진
- 삼성전자향 디지털라이저(양면PCB) 매출 감소 및 고정비 부담 가중
- 신성장 관점에서 매출 다각화 및 거래선 다변화가 필요

투자의견 시장수익률(MarketPerform) 하향, 목표주가도 8,500원 하향

2026년 2Q 매출은 909억원(+5.9% yoy/-29.5% qoq), 영업이익은 -51.7억원(적전 yoy/qoq)을 기록. 종전 추정대비 매출은 소폭 상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하회, 부진한 실적으로 평가. 갤럭시S26 시리즈의 판매가 둔화된 시기(2Q), 그리고 A시리즈의 판매 부진으로 전체 매출 규모가 고정비 수준을 하회. 또한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관련된 비용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yoy/qoq), S펜이 적용된 모델이 갤럭시S26 울트라에 국한된 점을 감안하면 2026년 3Q에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2026년 주당순이익(EPS)을 종전대비 36.9% 하향, 투자의견은 시장수익률(Marketperform)로 하향, 목표주가도 8,500원(2026년 주당순이익(EPS) X 목표 P/E 14.3배 적용, 성장기 평균)으로 하향

모바일 중심에서 벗어난 매출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

인터플렉스의 매출 분야에서 다각화 및 거래선 다변화가 필요. 주력 제품인 디지털라이저(양면 연성PCB)의 적용 모델이 2024년 2개(갤럭시S울트라 / Z폴드)에서 2025년/2026년 1개(갤럭시S울트라만)로 축소, 전체적이 외형 감소가 진행, 디지털라이저 매출 감소분을 상쇄할 대안이 부재, 그리고 전장용 분야에서 매출 확대가 늦어지면서 고정비 부담이 수익성 부진으로 연결된 상황. 2026년 전체 매출은 4,395억원(-6.1% yoy), 영업이익은 70.5억원(-75.4% yoy)으로 추정

(단위: 십억원, %)

구분	2025	1Q26	2Q26				3Q26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86	129	89	91	5.9	-29.5	88	94	-7.8	3.4
영업이익	2	5	-2	-5	적전	적전	0	-2	적전	적지
순이익	0	10	1	-4	적지	적전	2	0	-95.2	흑전

자료: 인터플렉스,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497	468	439	452	473
영업이익	34	29	7	22	26
세전순이익	51	34	20	36	40
총당기순이익	55	33	16	28	32
지배지분순이익	55	33	16	28	32
EPS	2,363	1,410	668	1,220	1,356
PER	3.9	7.5	10.9	6.0	5.4
BPS	12,079	13,306	13,977	15,201	16,560
PBR	0.8	0.8	0.5	0.5	0.4
ROE	22.0	11.1	4.9	8.4	8.5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인터플렉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코리아씨키트 (00781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95,000

하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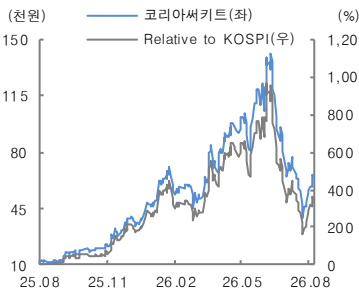
(26.08.14)

63,10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6977.94
시가총액	1,58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2%
자본금(보통주)	1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41,900원 / 11,3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28억원
외국인지분율	3.87%
주요주주	영풍 외 6 인 54.01% 국민연금공단 9.6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1	-35.6	8.0	415.5
상대수익률	-8.7	-26.4	-14.7	138.3



긴 호흡의 접근, 반도체 패키지 업체로 성장

- 2Q26 영업이익(193억원 213% yoy/-27% qoq)은 컨센서스 하회
- 2026년 영업이익(996억원)은 5.2%(yoy) 추정, 개선 전망은 유지
- 2026년 브로드컴, 엔비디아(소켓)향 매출 증가로 성장 토대 구축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95,000원 하향

연결, 2026년 2Q 매출은 4,072억원(22.9% yoy/-3.0% qoq), 영업이익은 193억원(213.4% yoy/-27.1% qoq)을 기록. 매출은 컨센서스(4,161억원)에 부합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추정(243억원)과 컨센서스(301억원)를 각각 -20.5%, -35.9%씩 하회 등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부진. 별도(코리아씨키트)의 매출은 2,871억원(43.2% yoy/15% qoq), 영업이익은 251억원(197% yoy/5.6% qoq)으로 종전 추정에 부합

별도 실적은 선전하였으나 연결 대상인 인터플렉스의 실적 부진에 기인. 인터플렉스의 2026년 2Q 영업이익은 -52억원, 시그네틱스는 적자지속(축소) 기록. 2026년/2027년 주당순이익(EPS)을 종전대비 8.5%, 4.8%씩 하향, 목표주가를 95,000원(2027년 EPS X 목표 P/E 25.4배(실적 회복기 상단) 적용)으로 하향.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 투자포인트는

2026년 영업이익은 85.2%(yoy) 증가 추정

연간 실적의 개선 관점에서 접근. 2026년 및 2027년 연속으로 실적 개선이 진행. FC계열의 패키지 매출 증가가 실적 개선을 견인. 하이닉스향 FC CSP, 브로드컴향 FC BGA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 메모리모듈도 소켓2 매출이 반영되면서 서버향 중심으로 메모리모듈과 소켓2 비중 증가로 믹스 개선이 진행. 영업이익은 2026년(996억원) 85.2%(yoy), 2027년(1,450억원) 45.5%(yoy) 증가가 예상

국내에서 설비투자 효과가 2027년 1Q에 반영되면서 고다층화, 고집적화로 평균공급단가(ASP)가 상승하여 수익성 개선이 2027년에 2026년대비 높을 전망. 전략적으로 협력 중인 브로드컴향 FC BGA 매출이 Si향 영역으로 진입 추진. 통신부품향 공급에서 수익성 높은 Si향으로 신규 진입하면 2027년 추가 매출 및 믹스 효과로 연간 실적의 상향이 가능. 반도체 PCB(패키지) 매출 중 FC 계열(FC BGA, FC CSP, FC BOC)의 비중이 2024년 68%에서 2025년 74%, 2026년 79%로 증가하여 반도체 기판 업체로 전환이 본격화. 그리고 PCB 시장도 FC 계열 중심으로 성장, 코리아씨키트에 성장 기회가 예상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1Q26	2Q26				3Q26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31	420	393	407	22.9	-3.0	416	423	12.7	4.0
영업이익	6	26	24	19	213.4	-27.1	30	19	40.3	-3.5
순이익	7	25	18	21	196.1	-17.8	21	13	13.7	-36.1

자료: 코리아씨키트,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H바텍
(06072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5,000

하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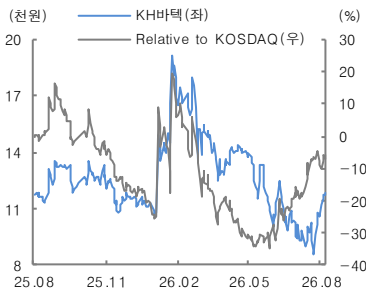
(26.08.14)

11,94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DAQ	864.65
시가총액	28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6%
자본금(보통주)	1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9,120원 / 8,68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55억원
외국인지분율	7.76%
주요주주	남광희 외 2 인 22.8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7.4	-10.5	-28.3	2.0
상대수익률	15.5	23.3	-8.3	-3.9



2Q 부진하나 로봇 및 전장은 확대 추진

- 2Q26 영업이익(50억원)은 컨센서스 하회, 스마트폰 판매 부진
-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판매 둔화, 원가부담 가중 예상
- 2027년 전장향 및 로봇 사업의 확대, 신성장 확보 추진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15,000원 하향(11.8%)

2026년 2Q 매출은 1,039억원(-23.9% yoy/+88.5% qoq), 영업이익 50억원(-57.1% yoy/+196% qoq)으로 컨센서스를 하회(매출은 -29.1%, 영업이익은 -57.9%), 메모리 가격의 상승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둔화, 그리고 원가 상승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성 부진이 심화. 2026년 2Q, 폴더블폰의 생산이 집중된 시기, 다만 한지의 ASP가 전년 대비 상승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면 수량(Q) 증가가 높지 않으면 매출과 이익 증가에 한계가 존재. 최근 갤럭시Z8 폴드(와이드형, 신규 모델) 판매 호조는 긍정적이나 전체 시리즈의 판매량 증가는 전년대비 10% 이내로 추정. 2026년 주당순이익(EPS)을 62.3% 하향, 목표표주가는 15,000원(2027년 EPS X 목표 P/E 21.7배(실적 회복기 상단)으로 하향(11.8%).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중확대 유지. 투자포인트는

2027년 로봇 및 전장 분야로 사업 다각화 추진

2027년에 애플이 폴더블폰 시장에 참여한 2년차, 그리고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라인업 확대(2026년 3개에서 2027년 4개로 예상)로 한지의 수량 증가가 예상. 또한 자동차향 매출(배터리향 엔드플레이드, 전장향 한지)이 구체화되면서 모바일 중심의 매출 비중이 축소, 자동차의 매출 증가로 매출 성장 확대가 예상. 레인보우의 협동 로봇용 외장 케이스 부품 공급 등 로봇 사업을 확대하면서 미래의 신성장의 축으로 추진. 스마트폰 중심의 사업포트폴리오가 자동차(전장용), 로봇으로 전환을 2026년 시작, 2027년 매출 확대에 주력, 긍정적으로 평가

2026년 2Q 실적은 추정을 하회

2026년 2Q 매출은 1,039억원(-23.9% yoy/88.5% qoq), 영업이익은 50억원(-57.1% yoy/196% qoq), 당기순이익은 32억원(54.9% yoy/98.4% qoq)을 기록. 한지를 포함한 조립모듈 매출은 695억원으로 22.9%(yoy) 감소, 전장향 매출은 71억원으로 12.9%(yoy) 증가 기록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1Q26	직전추정	2026			3Q26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37	55	140	104	-23.9	88.6	147	106	-36.8	2.5
영업이익	12	2	11	5	-57.1	195.7	12	5	-63.1	4.7
순이익	2	0	9	3	54.9	984.3	9	4	-67.4	16.8

자료: KH바텍,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화전자 (03324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2,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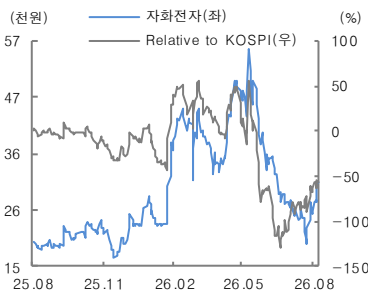
30,800

(26.08.14)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6977.94
시가총액	66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1%
자본금(보통주)	1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55,700원 / 16,69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83억원
외국인지분율	13.97%
주요주주	김상면 외 3 인 36.87%

추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6.0	-35.6	-26.9	67.5
상대수익률	23.8	-26.3	-42.3	-22.6



2Q 실적도 깜작!

- 2Q26 매출(2,352억원)과 영업이익(225억원)은 호조, 추정을 상회
- 북미향 액츄에이터(OIS) 매출 증가 및 점유율 확대
- 2026년 1조원 매출을 예상, 영업이익(921억원)도 최고 추정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62,000원 유지

2026년 2Q 매출은 2,351.9억원(+40.1% yoy/-9.8% qoq), 영업이익은 224.5억원(흑전 yoy/-8.9% qoq) 기록. 종전 추정대비 매출(2,073억원)은 13.4%, 영업이익(94억원)은 139.4%씩 상회 등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평가. 2026년/2027년 주당순이익(EPS)을 종전대비 각각 14.8%, 21.6%씩 상향, 목표주가는 62,000원 (2026년 주당순이익(EPS) X 목표 P/E 13.9배 적용, 실적 호조 구간의 평균) 및 투자자의견은 매수(BUY) 유지. 밸류에이션 저평가, 애플내 점유율 증가 가능성과 로봇 분야로 액츄에이터 사업다각화 추진을 반영하면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는 가능하다고 판단. 비중확대 유지

2H26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0.7%(yoy), 흑자전환(yoy) 기록

2026년 2Q 포함한 상반기 매출은 4,959억원, 영업이익은 471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0.7%, 흑자전환 등 큰 폭의 성장을 시현. 아이폰 17 판매 호조가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상반기에 경쟁사대비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매출 증가가 추정을 상회. 2026년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9.5%로 전년대비 10.8%p 확대.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및 고부가 중심으로 수출 개선, 가동율 최적화로 믹스 효과가 추가된 것으로 분석

상반기 실적을 반영하면 최초로 2026년 매출은 1조원(+18.5% yoy), 영업이익은 921억원(119.3% yoy)으로 추정. 삼성전자와 중국 중심에서 애플향으로 거래선 다변화 효과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대상으로 폴디드층에 적용된 액츄에이터(OIS)를 모두 공급한 유일한 동시에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 스마트폰용 폴디드층에 적용된 액츄에이터를 바탕으로 로봇 / 휴머노이드 분야로 다각화를 추진 중. 기술의 연관성과 액츄에이터 분야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반영하면 신규 사업에서 매출 가시화는 2027년 예상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1Q26	2Q26		3Q26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매출액	168	261	207	235	40.1	-9.8	207
영업이익	-9	25	9	22	흑전	-8.9	9
순이익	-16	37	7	17	흑전	-52.3	7

자료: 자화전자,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원무역
(111770)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4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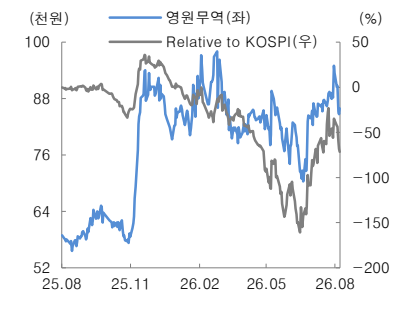
85,900

(26.08.14)

섬유·복합재

KOSPI	6977.94
시가총액	3,80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6%
자본금(보통주)	2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98,000원 / 55,6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2억원
외국인지분율	29.39%
주요주주	영원무역홀딩스 외 9 인 50.75% 국민연금공단 10.5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1	7.0	-5.3	48.1
상대수익률	0.4	22.4	-25.3	-31.5



하반기 호실적, 매력적인 valuation,
높은 배당수익률 3박자

- 2분기 OEM 달러 기준 14%, 원화 기준 23% 고성장(yoy)
- Scott 적자 확대됐으나 재고 30% 감소(현지화 기준)하며 실질 내용 개선
- 배당성향 30%로 상향 공시. 주가 하방 경직성 확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40,000원 유지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40,000원(12MF 예상 P/E 9배) 유지

2분기 OEM 부문 달러 매출 성장률이 14% 달성함으로써 동사가 글로벌 기능성 의류 제조 분야에서 최고임을 다시 한번 증명. 3분기 달러 성장률은 7% 수준으로 예상되며 Scott 재고도 상반기에 대폭 감소하여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 높아짐. 이와 더불어 동사는 최근 공시를 통해 26~27년 배당성향을 기존의 25%에서 30%로 상향. 이를 고려한 2026년 주당 예상 배당액은 4,000원 이상으로 현 주가에서 4.6%의 배당수익률 기대. 하반기 양호한 실적 지속, valuation 저평가(12개월 FWD P/E 5배 수준), 높은 배당수익률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주가 흐름 예상

2Q26 Review: OEM 달러 기준 14% 고성장, Scott은 재고처분으로 적자확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2,317억원(+19%, yoy), 1,756억원(+21%, yoy)으로 어려운 업황에도 불구하고 호실적 지속 [OEM] 달러 기준 매출액 yoy 약 14% 증가. 환율 상승 효과로 원화 기준 매출 성장률은 23% 기록. 동사의 주요 고객사 중 지난 해부터 수주 증가를 견인하는 아크테릭스가 2분기에도 매출이 대폭 증가하고, 그 뒤를 이어 VFC, 파타고니아향 매출이 두 자리 수 증가한 것으로 파악. 기능성 의류 시장이 새로운 브랜드들이 등장하면서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top-tier 제조사인 동사도 매분기 고른 높은 신장세 기록 중. 양호한 매출 성장에 힘입어 동 부문 영업이익은 yoy 18% 증가. 영업이익률은 지난 2분기 보다 소폭 하락한 23% 수준 기록

[Scott] 2분시 스캇 적자는 지난 해 수준인 257억원 기록. 이는 대부분 재고 처분 손실로 인한 것으로 파악. 2분기 스캇 재고액이 yoy 18% 감소. 동기간 스위스 프랑 환율이 12% 상승한 점 고려하면 실제 재고는 30% 감소한 것으로 재고자산 내용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추정. 하반기 동 부문의 영업적자폭은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 긍정적으로 평가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1Q26	2Q26				3Q26			
			직전추정	확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038	896	1,163	1,232	18.6	37.5	1,173	1,341	11.3	8.9
영업이익	146	120	178	176	20.5	45.8	186	205	13.1	16.7
순이익	119	150	148	163	36.7	8.6	163	160	-3.3	-2.0

자료: 영원무역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3,518	4,064	4,548	4,762	4,973
영업이익	316	514	628	744	773
세전순이익	408	580	764	898	930
총당기순이익	295	426	570	670	694
지배지분순이익	427	492	598	704	728
EPS	9,637	11,109	13,504	15,880	16,440
PER	4.4	7.4	6.1	5.2	5.0
BPS	83,200	92,353	102,453	114,145	125,747
PBR	0.5	0.9	0.8	0.8	0.7
ROE	12.3	12.7	13.9	14.7	13.7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영원무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세실업 (105630)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2,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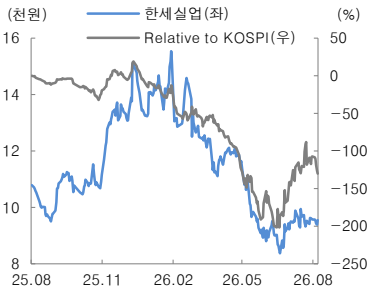
9,140

(26.08.14)

섬유·복합재

KOSPI	6977.94
시가총액	36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1%
자본금(보통주)	2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5,510원 / 7,9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0억원
외국인지분율	5.94%
주요주주	한세에스24홀딩스 외 10 인 64.6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2	-12.5	-27.8	-10.3
상대수익률	-1.5	0.0	-43.0	-58.5



2분기 예상 밖 서프라이즈

- 2분기 OEM 영업이익률 크게 개선되며 서프라이즈
- 3분기 달러 기준 매출액은 전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주가 하락으로 배당 수익률 6% 상회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2,000원 유지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2,000원(12개월 FWD 예상 P/E 8배) 유지

26년 3분기 오더 흐름은 달러 기준 전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관세 영향으로 동사의 주력 제조 품목인 중저가 의류 제품 소비가 크게 늘지 못하면서 고객사들의 재고 정책에 따라 하반기에도 분기별 매출 성장률 편차가 클 가능성 높음

다만 동사는 지난 공시를 통해 26~28F 최소 배당 600원을 제시하였고, 하반기 낮은 이익 개선을 전망에도 주가는 이미 큰 폭의 조정을 겪은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현 주가 수준에서 예상되는 높은 배당수익률(배당 수익률 6.5% 전망)은 향후 주가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2Q26 Review: 예상 밖 서프라이즈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616억원(+18%, yoy), 361억원(+193%, yoy)으로 서프라이즈 기록

OEM 부문 달러 기준 매출 성장률은 yoy +10% 기록. 환율 효과(yoy +7%)로 원화 기준 18% 성장. 가장 매출 비중이 큰 GAP의 경우 2분기 출하가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에어로포스텔, 칼하트 등 기타 고객사 매출은 대부분 mid-high single% 성장을 기록. 1분기 감소했던 저단가 마트 매출도 2분기에 전년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1분기에 단가 상승에 이어 2분기에 수량도 의미 있게 증가. 이 밖에 칼라맨터치 매출액이 외부 고객 매출이 크게 증가(+60%, yoy)하면서 전사 매출 성장에 기여

양호한 증가에 교환율 여건이 맞물리면서 마진도 개선.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3.8%p 상승하며 영업이익이 추정치 대비 크게 상회함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1Q26			2Q26			3Q26		
			직전추정	확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75	467	545	562	18.2	20.2	541	610	12.2	8.6
영업이익	12	10	20	36	192.8	245.4	18	38	2.2	4.7
순이익	22	-4	12	13	-40.2	흑전	14	29	47.5	120.0

자료: 한세실업,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798	1,942	2,136	2,244	2,105
영업이익	142	83	99	86	105
세전순이익	89	81	74	93	136
총당기순이익	58	57	55	70	101
자배기분순이익	58	57	55	70	101
EPS	1,451	1,431	1,375	1,745	2,536
PER	9.8	9.3	6.7	5.3	3.7
BPS	17,742	18,368	18,965	19,992	21,852
PBR	0.8	0.7	0.5	0.5	0.4
ROE	8.6	7.9	7.4	9.0	12.1

주: EPS와 BPS, ROE는 지배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세실업,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LS
(006260)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3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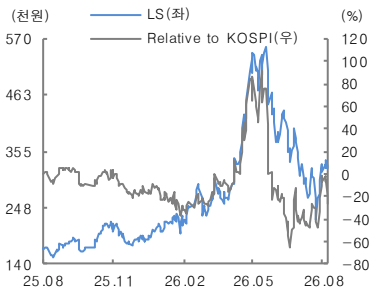
(26.08.14)

323,500

유틸리티업종

KOSPI	6977.94
시가총액	10,09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5%
자본금(보통주)	15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553,000원 / 150,8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81억원
외국인지분율	16.70%
주요주주	구자열 외 44인 33.11% 국민연금공단 12.5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0.6	-35.9	30.4	95.5
상대수익률	8.7	-26.7	2.9	-9.6



내러티브가 실적으로 증명되기 시작!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630,000원 유지
- 2Q26 영업이익 5,956억원(+153% YoY)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 2H26 영업이익 1.06조원(+106% YoY) 전망, 26년 영업이익 26% 상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630,000원 유지

목표주가를 630,000원(적정 NAV 43.5조원 대비 55% 할인)으로 유지. 금리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실적 추정 상향 등을 반영하여 유지. 1) 1Q26에 이어 2Q26 2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ELECTRIC, 전선, 아이앤디 등 주요 자회사의 전력망 및 AI 데이터센터향 전력인프라 성장 스토리가 실적으로 확인되기 시작, 2) 자사주 11% 소각, 중복상장 규제 등에 따른 자회사 가치 할인을 축소 기대, 3) 현재주가는 적정 NAV 대비 77%, 현재 NAV 대비 55% 할인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음

[전선]은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의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 지속과 함께 2H26 미국 빅테크향 부스덕트, 4Q26 유럽 TenneT향 해저케이블 매출 본격화 예상. 부스덕트는 현재 미국 빅테크 등과 총 5.3조원 이상의 장기 프레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26년말 부스덕트 3배 증설(2025년 0.5조원 → 1.5~2조원, 가격 상승분 반영), 2027년말 미국 지중 및 해저 전력케이블 공장 준공 등으로 중장기 고마진 제품군 확대 예상. [아이앤디]는 HEV 및 초고압변압기용 특수권선 증설, 미국 내 프리폼(광섬유 모재) 확보 등을 통한 미국 광케이블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 등임. [ELECTRIC]은 미국 AI 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 제조업향 고마진 배전반/배전기기 매출 확대, 미국 배전반 증설(2027년 매출 0.3조원, 2030년 0.7조원 이상 규모), 국내 초고압 변압기 추가 증설 등임. 단, [MnM]은 EVBM(황산니켈 및 황산코발트, 니켈 금속 기준 2.4만톤/년, 온산공장)의 2차전지 고객사 확보를 통해 2027년 이후 황산가격 하락 우려, 전기동 부진 등을 상쇄할 수 있는지는 점검 요소임

2Q26 영업이익 5,956억원(+153% YoY)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2Q26 매출액 11.0조원(+40%, 이하 YoY), 영업이익 5,956억원(+153%), 영업이익률 5.4%(+2.4%p)를 기록. 영업이익 컨센서스 4,750억원을 25% 상회. 주요 자회사별 영업이익은 전선 1,413억원(+71%), 아이앤디 740억원(+165%), ELECTRIC 1,785억원(+64%), MnM 1,757억원(흑자전환) 등을 기록. 전선 부문은 지중케이블, 부스덕트 등 고마진 제품군의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통신케이블도 광섬유 판가 상승, AI 데이터센터향 매출 발생 등에 힘입어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음.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등 전선 자회사의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 아이앤디는 HEV 및 초고압변압기용 특수권선 매출 확대 등에 힘입어 매출 성장 및 마진 개선이 1Q26 대비 확대됨. MnM은 전기동의 TC/RC 부진에도, 황산/PSA 및 귀금속의 전년동기 대비 가격 상승 등으로 큰 폭으로 실적 개선

2H26 영업이익 1.06조원(+106% YoY) 전망, 26년 영업이익 26% 상향

2H26 매출액 20.8조원(+22%), 영업이익 1.06조원(+106%), 영업이익률 5.1%(+2.1%p) 전망. 2026년 연간 추정치는 기존 대비 매출액 7%, 영업이익 26% 상향. 자회사별 영업이익은 전선 2,942억원(+158%), 아이앤디 999억원(+123%), ELECTRIC 4,848억원(+110%), MnM 1,853억원(+20%) 예상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